

## 거주자의 대 사회적 개념과 주거공간의 영역별 구성체계와의 관계 - 한국과 독일의 주거형태학적 비교관찰을 통하여 -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s Perception of Socio-cultural Attributes and the Spatial Structures of Dwelling Space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German Housings -

전 남 일\*  
Jun, Nam-Il

#### Abstract

This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German housings aims at understanding different structural systems in the indoor and outdoor spaces, depending upon the user's perception of the socio-cultural attributes. The analysis starts with four alternative contrary assumptions, that appear in morphological forms of dwelling; 1) linear distribution vs. areal distribution of residential districts, 2) mirror system vs. comb system in the layout of plot plans, 3) organization of front vs. back outdoor spaces and 4) opening vs. closing in the indoor spaces. A clear difference is found between Korean and German samples in view of public and private relationships between indoor and outdoor spaces as well as the intermediate space. In the Korean housing there always exists a symbolic and psychological territory of a certain sphere. On the other hand, outdoor space passes through various phases only to form a certain hierarchy even in a private space and, thereby, sets a boundary between private and public areas. In the case of Germany, the building itself draws a clear line between private and public outdoor spaces, and therefore the outdoor space has a "front" and "back". Thus, Germany's private space may face a genuine public space and street, which is rare in the Korean housing. Although the layout of indoor space in the Korean housing tends to be open, such an openness may be outstanding in living and dining spaces, kitchen and various accesses to rooms. In the case of Germany, such indoor spaces are usually closed to each other. Thus, corridors act to separate these spaces. Such differences are analysed to be due to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and socio-cultural attributes as intra-family and inter-neighbor relationships or communications.

Keywords : socio-cultural attributes, spatial organization and structure, publicity and privacy, intra-family and inter-neighbor relationships, morphological forms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주거문화와 그 형태가 거주자의 의식, 전통, 사회적 관습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지역간, 집단간에 상이함을 보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그것이 국가, 민족별로 관찰될 때는 동, 서양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 역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이라는 두 지역,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을 택하여 거주지, 주거단위 및 그 주변, 그리고 주거 내부공간을 단계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이러한 공간구성과 인문적 요인간의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문화적 특성이 양국 거주자들의 행위패턴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거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인자를 점차 중요시하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비교 연구에 근거한 구체적 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공시적 고찰을 통하여 현재의 주거문화에 대한 이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전임강사  
본 연구는 2002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해, 그리고 특히 인간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주거환경의 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sup>1)</sup>

2. 연구방법 및 연구의 범주

본 연구는 형태학적<sup>2)</sup>으로 나타나는 독일과 한국의 거주지 특성과 이들이 의미하는 거주자의 대 사회적 개념, 즉 거주자의 공, 사에 관한 인식, 거주자간의 사회적 교류 행태, 그리고 그 관계들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공시적 비교를 주 내용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연구대상 주거 형태가 어떠한 배경과 역사를 갖고 현재 이르렀는지에 대한 추적보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유의미한 정황들이다. 따라서 확률적 통계치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양공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거 및 거주지의 형태에 대한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sup>3)</sup>

본 연구는 이러한 형태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상이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독일과 한국의 거주지 및 단위주호의 건조환경을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고찰하였다. 양국의 거주지 및 주거 내부공간에 대한 사진 촬영자료, 스케치, 문헌에서 수집한 평면자료 등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도식으로 정리하였다. 고찰대상은 주거 내부공간의 구성, 거주지의 군집과 배치형태, 이웃한 주택과의 대면성, 외부공간 및 공, 사원충공간의 구성형태, 가로 및 광장과와의 연계성 등이다.

1) 본 고에서는 한국의 주거가 서구로부터의 영향으로 인하여 고유의 것이 유지된 부분과 서구의 것과 동화된 부분이 공존한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공존의 상황에서 서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고유한 속성은 특히 부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간적 현상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에 주목한다. 즉 비록 서구의 영향으로 주거의 외형적 모습이 상당부분 서구화 되었지만 주거라는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속성은 그에 비하여 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본 고의 입장이다.  
 2) 형태학(Morphology)이라 함은 원래 생물학적, 어문학적 개념에서 유래된 용어로 하나의 대상을 그 모양과 형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에 있어서의 형태론적 관심은 특히 개체와 군집의 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주거건축 연구에서 많이 보여진다. 전남일(1999), 독일 집합주택 계획에서 나타난 건물 형태, 배치, 진출입공간의 형태론과 결정인자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권 10호, p.75에서 재인용  
 3) 따라서 본 고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양국주거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주거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대표성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필연적 인과관계를 이미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주목할만한 대상들을 심도있게 분석하는데 의미를 둔다.

II. 이론적 고찰

Bollnow(2000)에 의하면 경험되는 공간은 인간생활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을 저해하거나 권장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주거공간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결정지워주는 행위의 장으로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어떠한 “목표된” 형상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주거공간은 개인의 차원, 단위주택의 차원,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공간으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거의 공간질서는 의도된 행위에 의하여 조직되는데, 이때 개인을 넘는 인간행위의 집합체에 의해 조직되는 질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공간에 있어서의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뿐만 아니라 내부공간 안에서도 그림 1과 같이 오버랩되어 형성된다. 즉 단위주호와 외부공간이 일차적으로 공적관계와 사적관계를 형성한다면, 주거 내부공간에서도 각 개실은 사적인 공간으로, 거실공간은 공적공간으로 이차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Bollnow(2000)에 따르면 이러한 영역은 외부의 방해적 요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방어의 목적으로 형성된다. 이는 울타리, 담, 벽체 등의 요소로 구체화되며, 이로써 어떠한 인간(또는 인간 그룹)은 외부로부터 단절된 자유로운 움직임이 보장되는 완전히 그에게 속하는 공간을 형성한다.

Lawrence(1999)는 주택 디자인의 기능 중 하나가 공적,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이런 영역 사이의 관계는 거주자, 이웃, 방문객과 외부인에 대한 행정적, 문화적, 법적, 사회정치적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다.<sup>4)</sup> 한편 그는 이것이 곧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조절이라 보았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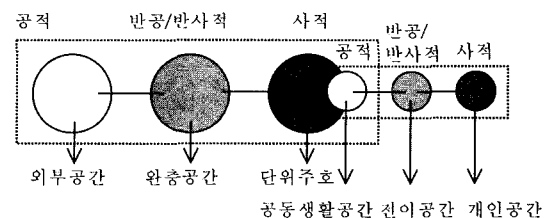


그림 1. 주거공간의 영역별 상호관계

4) Law, S. M. & Chambers, E. 편저 (1994), 주거문화연구회 역, 주거, 문화, 디자인, p.102

화적 요소들이 건조환경의 디자인과 그 사용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는 이때 그가 제시한 건축과 인간행태에 관한 네 가지 비교분화 연구의 단계 중에서 관습적인 일상생활의 방식같이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간적, 행동적 패턴에 초점을 맞추었다.<sup>5)</sup> Lawrence(1999)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디자인을 할 때 특정사회에 변치 않는 일련의 규칙, 즉 일정한 코드로 나타난다. 본 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주거공간 내, 외부의 형태학적 특성들은 이러한 코드들의 사례이다.

손세관(1996)은 이러한 형태론적 관점을 유형적 형태학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는 유형이라는 개념이 건축문화에 인간의 집단적 인식이 표현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내재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이때 하나의 단위로서의 건물과 필지의 형상, 그리고 도로패턴을 포함하는 평면단위의 구성을 고찰의 범주로 보았다.

### III. 주거공간의 영역별 구성체계 비교

#### 1. 도시적 차원 - 면적 공간개념과 선적 공간개념

광역의 거주지에 대한 개념은 유형적 형태(모폴로지: Morphology)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거주지가 형성되고 각 필지로 나뉘어져서 분배되는 기준은 지역(Area)이다. 즉 면적(areal) 공간개념을 갖는다. 따라서 하나의 블록은 면 분할에 의하여 질서가 부여되고, 구획된다. 여기서의 유형적 형태(Morphology)는 슬리드한 부분(건물)과 보이드한 부분(외부공간)이 하나의 블록 안에서 혼합되면서 비균질적(heterogenic)으로 분할된 영역을 형성한다. 단위 건물은 대지 안에서 좌표의 형성 없이 분산된 배치형식을 취한다. 면적 공간개념을 갖는 거주지 구성에 있어서는 가로와의 관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각 단위건물에게 가능한 좋은 조건의 대지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때 각 단위건물에 주어지는 좋은 대지와 건물배치의 조건은 첫째, 건물이 남향을 향할 것, 둘째, 대지의 전면에 마당이 위치할 것, 셋째, 건물은 직접 대로변에 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각 주호에 골고루 부여하면서 각 주호에의 출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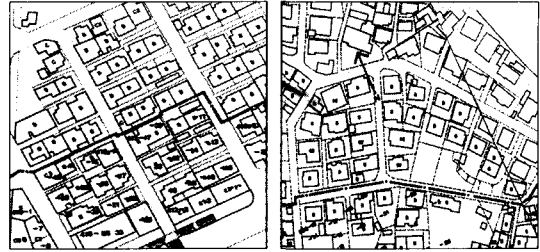


그림 2. 면적 공간개념의 예 (한국, 서울 서대문구)

가능케 하기 위하여 생긴 진입공간은 골목이다. 즉 골목이 형성됨으로써 건물은 대로변에 면하지 않고, 그 진입은 간접적인 2차 완충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적 공간인 가로는 반공적 성격을 띤 골목의 형태로 블록에 침투하게 된다.

반면, 독일의 경우 가로, 광장의 가장자리(Edge)는 가장 뚜렷한 거주지 형성의 기준이 된다. 각 개별 주호는 가로, 또는 광장의 전면에 배치되며, 이에 따라 대지의 경계선이 구획된다. 즉 거주지가 형성되고 각 필지로 나뉘어져서 분배되는 기준은 가로(Street)이다. 따라서 선적(linear) 공간개념을 갖는다.<sup>6)</sup> 이는 단독주택이나 집합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Morphology)이다.

면적 구성인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이 서로 떨어져서 건축되는 개방형 배치만이 나타난다. 그러나 선적 구성인 경우에는 개방형 배치와 함께 집합주택의 경우 과밀한 도심에서 연쇄적인 합벽을 형성하며 폐쇄적으로 배



a) 전경

b) 배치도

그림 3. 가로에 면한 거주지(독일, Aachen Rutschers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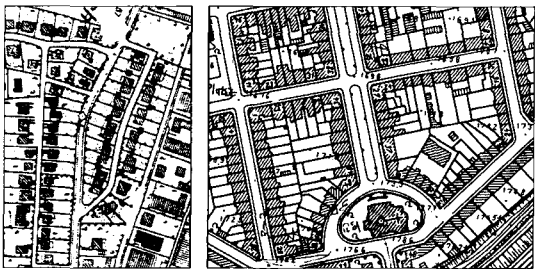
6) 이는 Hall, E.(1959)이 미국과 일본에서의 공간개념의 차이를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의 공간개념은 사물의 모서리를 이용한다. 모서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선을 그어 모서리를 만든다. 공간은 좌표체계에 의해 구분된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을 나누어 ‘공간’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공간과 저 공간, 또는 한 공간의 각 부분을 구별한다.” Hall, E., 최효선 옮김(2000), 침묵의 언어, p.242,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조적 개념을 “선적 구성”과 “면적 구성”으로 정의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5) Lawrence, R. J. (1999), 이연숙 외 7인 역, 주택, 주거, 집, p 67-69.



a) 전경 b) 배치도

그림 4. 광장에 면한 거주지(독일, Aachen Burscheid)



(a) 개방형 (b) 폐쇄형

그림 5. 선적배치의 두 유형(독일, Aachen Bursche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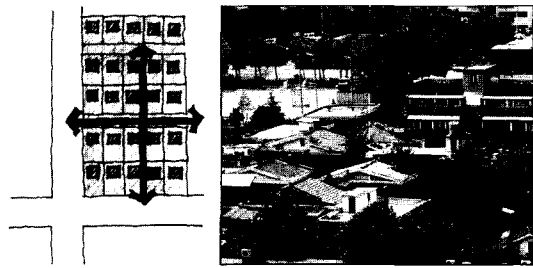
치되는 유형이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연속주택(Zeilenbebauung)이라 한다. 여기서의 유형적 형태는 슬리드한 부분(건물)과 보이드한 부분(외부공간)이 하나의 블록 안에서 명확하게 균질적(homeogenic)으로 분할된 영역을 형성한다. 단위 건물은 주로 가로 및 광장, 그리고 반대편의 외부공간으로 향한 두 면의 개구부를 형성한다.

독일의 경우 각 건물의 방향성은 가로에의 배치에 의한 좌표로, 한국의 경우는 향으로 정해진다. 이 두 경우 공간개념의 출발선은 공공의 가로 및 광장인가, 단위 대지 및 건물인가에 의해 결정되어, 상호 대조적인 구성체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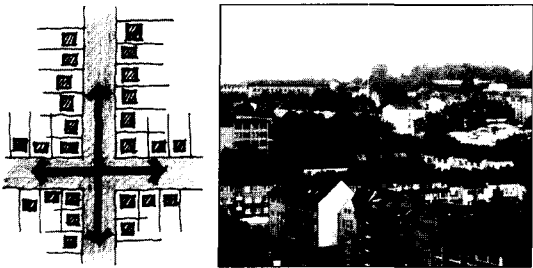
이러한 가로 및 광장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한 선적 구성의 가로중심 일렬 배치와 면적 구성의 지역중심 분산 배치는 각 경우의 주소지 적용법으로 분명히 대조된다. 독일의 경우 거리의 양쪽으로 늘어난 건물에 홀수와 짝수의 일련번호를 붙여 “○○가 ○○번지”로 명명하고, 한국의 경우는 거리와 상관없이 지역적으로 주소번호를 분배하여 “○○동 ○○번지”로 명명한다.

2. 블록 및 단지차원 - 거울형과 머리빗형<sup>7)</sup>

머리빗형은 인접한 건물의 방향이 각각 같은 방향을



전경 (한국, 서울 양천구)  
a) 면적개념-한국



전경 (독일, Aachen Roemderstr.)  
b) 선적개념-독일

그림 6. 한국과 독일의 대조적 거주지개념 비교

바라보는 유형이다. 여기서 공적인 외부공간과 사적인 (또는 반사적인) 외부공간의 경계는 건물과 건물의 사이에 여러 형태 - 담장, 울타리, 경계표시 등 - 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외부공간은 혼합된 성격을 갖는다. 이때 진출입 공간, 건물, 외부공간에 이르게 되는 배치 순서는 반복적으로 구성된다.

거울형은 인접한 건물의 방향이 서로 대칭적으로 마주보는 유형이므로 공적인 가로 및 광장과 사적인 반대편의 외부공간은 명확하게 구별된다.<sup>8)</sup> 따라서 외부공간은 단일 성격을 갖는다. 거울형의 경우는 건물 전면이 가로에 직접적으로 면하면서 완충공간 역할을 하는 진입로, 또는 골목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림 7에서 보듯이 머리빗형에서는 전면을 형성하는

7) 이 두 개념은 독일에서 건물배치의 시스템을 대면형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거울형은 Spiegelsystem을, 머리빗형은 Kammsystem을 직역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용어로는 “대칭형”과 “평행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의 처음 개념을 규정한 독일에서의 사용관례에 따라 직역하여 사용하였다.

8) 이때 사적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완전한 사적 영역을 의미하고, 집합주택인 경우에는 거주자들에 의해 외부의 공적 외부공간과는 구별되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의 사적 외부공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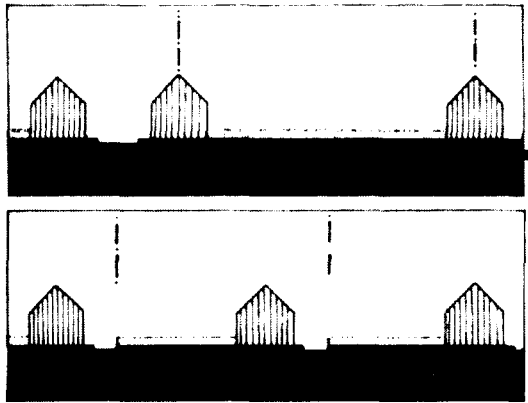


그림 7. 머리빗형과 거울형의 건물과 외부공간과의 관계  
(출처: Fester, K. in Arch+68, p.25)

공간과 후면을 형성하는 공간의 경계가 건물의 외부공간에 위치하게되는 반면, 거울형에서는 건물 자체가 그 경계를 이룬다(Fester, K. 1983).

머리빗형은 주호의 배치와 공적 가로가 직각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주호에 이르기까지의 접근경로는 따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주호의 진입과 가로는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 유형은 남향배치의 원칙에 매우 부합되는 배치형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단지구성 개념과 매우 일치한다. 독일의 경우 머리빗형은 “모든 주호에 똑같은 조건의 배분”이라는 기능주의적 개념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형성되는 연립형 저층 집합주택에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에도 독일의 단지에서는 한국의 남향배치와는 달리 서향, 또는 동향배치를 주로 취한다. 따라서 건물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배치된다.

독일의 경우 대규모 집합주거 단지에서 거울형은 슈퍼블럭을 형성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이때의 대칭적 구성은 블록의 두 면이 띄어 있는 이면대칭인 경우(Zeilen)와 블록이 막혀지게 되는 사면대칭인 경우(Hof: 중정 내부진입형, 또는 Block: 중정 외부진입형)로 나

표 1. 한국과 독일 집합주거단지의 대조적 구성 사례

	한국의 머리빗형 공간구성	독일의 거울형 공간구성 개념
배치도	<p>[한국, 서울 강동구]</p>	<p>[독일, Zehlendorf]</p>
개념도	<p>공적 외부공간 주사공간 반공적 외부공간</p> <p>계단실 주동출입구 전입도로 단지내입구 공용가로 담장</p>	<p>계단실 주동출입구 공용가로 주사공간 반사적 외부공간</p>

된다. 이는 주로 고밀도의 연속주택이 단지개념을 갖고 집합적으로 계획되는 경우이다. 거울형은 가로로 중심으로 맞은편 주호와의 대면관계를 형성한다.

한국에서 널리 일반화된 일자형 주거단지는 독일 기능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주거유형이다. 그러나 이때 건물의 물리적 형태는 독일의 그것과 비슷하나, 단지의 배치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성의 내용적 의미는 매우 상이하 며 이는 문화적, 사회현상학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첫째, 한국에서는 단지로서의 집합주택의 경우 거울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머리빗형만이 나타나고 독일에서는 거울형이 종종 나타난다는 점, 둘째, 한국의 경우 남향배치, 독일의 경우 동, 서향 배치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표 1의 두 사례는 같은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주거일지라도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대조적인 면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양국의 집합주거단지이다. 독일의 경우 거울형은 단독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선적 거주지 구성의 원리가 집합주거에도 어느 정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공용가로에서 각 주호로 직접 진입하지 않고 진입도로가 완충적으로 형성되는 점은 면적 거주지 구성에서의 골목의 존재와 일맥상통한다.

### 3. 주거동 차원 - 전면과 후면

한국 주거에서의 전면은 거실 또는 마루가 배치되어 있는 면을 일컫는다. 그리고 이 면은 방위에 의한 건물의 주된 향, 즉 남향을 취하게 된다. 전면으로의 진입은 대지의 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진입로가 대지의 남향에 면했을 때는 남향인 전면으로, 진입로가 대지의 동쪽, 또는 서쪽면에 면했을 때는 측면으로, 그리고 대지가 가로에 면해있지 않을 때는 골목이라는 이차적 진입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건물의 전면에는 일반적으로 마당을 배치함으로써 사적 내부공간과 공적 외부공간의 직접적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거의 예외 없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대규모 집합주택의 경우는 단지의 범주- 이러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직접적 대면을 차단한다. 가로에 대해서는 대문이 강한 정면성을 갖고며 폐쇄적으로 대응한다. 후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향에 면하게 되고, 담장으로 막힌 열악한 외부공간에 면하게 된다.

한편, 독일의 주거에서 의미하는 전면은 가로에 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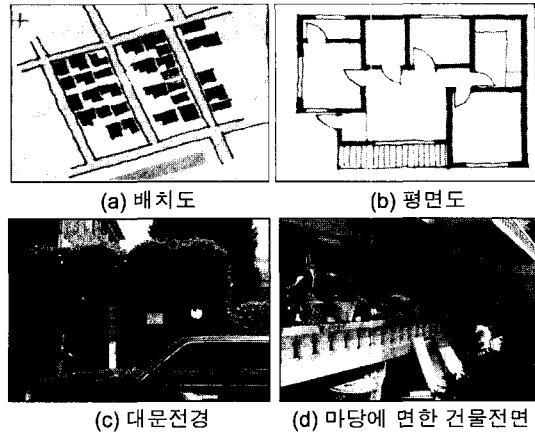


그림 8. 한국 주거에서의 전면성  
(한국, 서울 양천구: 2002년 6월 필자 스케치 및 촬영)

있으면서 교통행위가 일어나고 진입이 이루어지는 면을 일컫는다. 이 면은 한 주호가 외부와의 관계를 긴밀히 형성하면서 그 대표성을 부여받는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도시적 공동체생활과 사적 생활 간의 소통과 결합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 파사드는 도시적 공간에 직접 대면함으로써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사이의 관계를 매우 직접적이고 개방적으로 형성한다. 경우에 따라 전정, 낮은 울타리 등으로 약한 경계적 성격을 부여해 주면서 공적공간이 반공적 공간을 통하여 사적공간으로 전이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거리감을 형성하는 깊이는 대체로 매우 약화되어 있으며 상징적 성격만을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건물의 후면은 사적, 또는 반사적 외부공간을 바라보는 면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거실이 향하게 되고, 공적인 가로에 대해서는 폐쇄적으로 대응한다. 이 사적 외부공간은 개인 또는 가족, 아주 가까운 이웃 등과 같은 범주의 거주자에 의해 사회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한계 내에 위치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후면에는 거실과 같은 가족 공동공간이 면하고, 전면에는 부엌, 부속실 등이 위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침실과 같은 개인공간이 면하기도 한다. 그림 9는 1920년대 대량으로 건설된 전형적 노동자 집합주거이다. 배치에서의 전면과 후면의 명확한 구분, 주호 평면에서 주 공용공간의 후면배치, 그리고 진입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의미의 전면 파사드를 볼 수 있다.

폐쇄적 블록에서 진입이 가로에서 이루어질 경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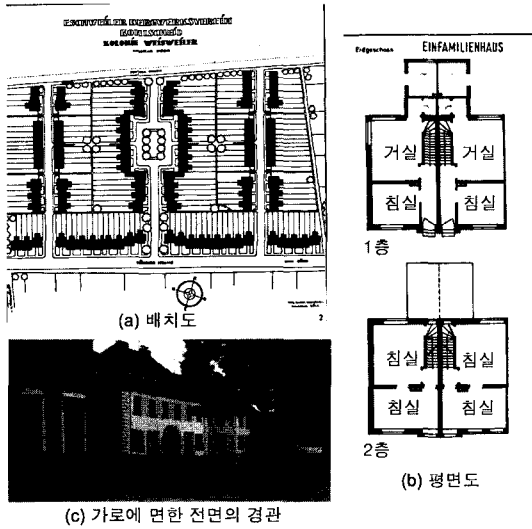


그림 9. 독일 주거에서의 전면성 (독일, Eilendorf Busch)

우 사적 공간으로부터 공적 공간으로의 전이단계가 매우 다단계적으로 나타나며, 독일의 경우는 사적 공간으로부터 공적 공간으로의 전이가 더욱 직접적이다.

면적, 선적 거주지 구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과 함께 이러한 공적, 사적 영역의 상이한 배열은 각 다음 그림과 같이 주호로의 진출입 공간(대문, 또는 대지와 가로로의 경계)의 상이한 배치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결국 주호 상호간의 대면관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때 한국 주거에서 - 특히 단독주택에 있어서 - 담장이 항상 존재하고 진입공간으로서의 대문의 상징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은 공과 사의 경계에 대한 더욱 강한 인식이 작용함을 나타낸다. 또한 대문을 통과한 후 전면에 위치하는 마당을 통하여 사적 내부공간으로 이르게 되듯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는 완충공간이 두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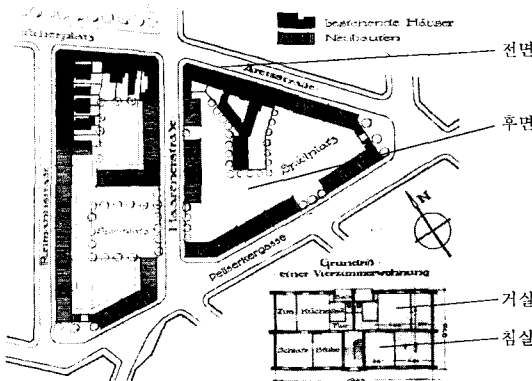


그림 10. 폐쇄형 블록에서의 전면과 후면

면에는 조용하고 외부에 폐쇄적인 반사적 공간인 중정이 형성된다. 이 때 거실 등의 주공간은 중정에 면하게 된다.<sup>9)</sup>

Fester et al.(1983)에 의하면 사회적 경계가 있는 곳에서는 공간적으로 각인된 표현을 필요로 한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공간적 표현의 문화별 상이함과 그로 인한 공, 사 영역의 상이한 경로 형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

9) 진입이 중정에서 이루어지는 폐쇄형 블록은 Hof 형이라 한다. 이 경우에도 거실은 주로 중정에 면하면서 전면과 후면은 진입이 가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이때에는 중정에 진입현관이 면하게 됨으로써 중정의 반공적 성격이 좀 더 강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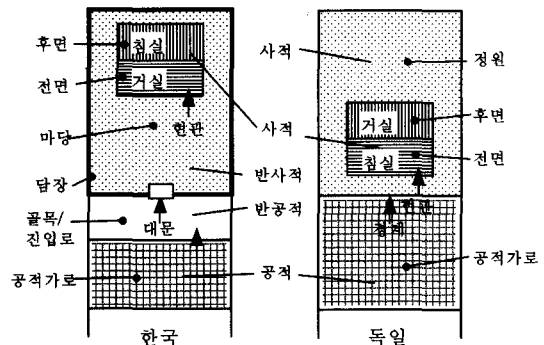


그림 11. 독일과 한국의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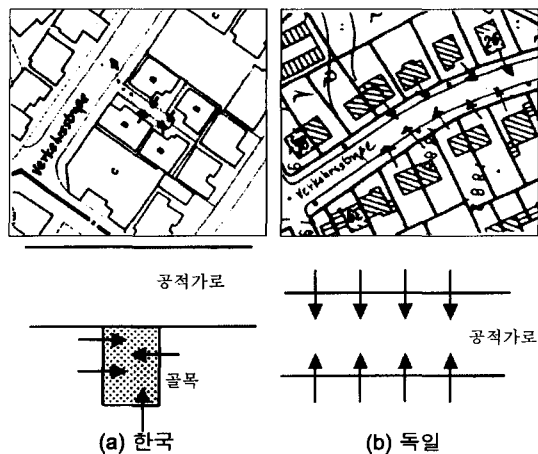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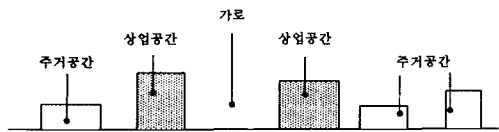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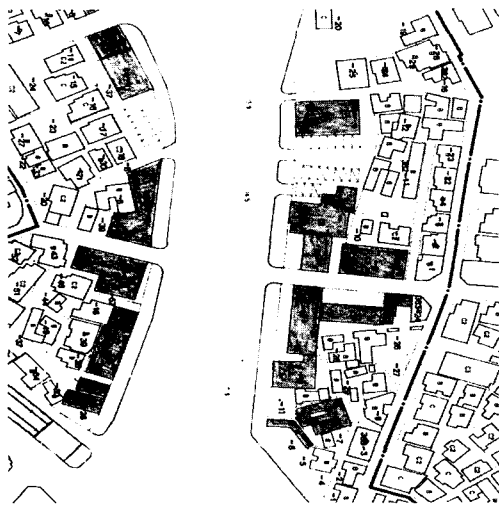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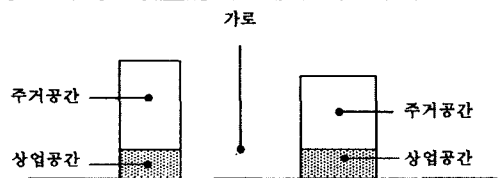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과 독일에서 출입구를 통한 이웃과의 대면관계 형성

게 형성되어 있다.

도심주거지에서 주거지와 상업건물과의 관계를 살펴



(a) 배치도 및 단면도식 (한국, 서울 서대문구)



(b) 배치도 및 단면도식 (독일, Aaxhen Wilhelmst.)

그림 13. 한국과 독일의 주거와 상업공간의 관계



(a)한국, 서울 동작구 노선상가 (b)독일 Aachen Burscheid

그림 14. 주거와 상업공간과의 관계 (전경사례)

보면 한국에서는 각각 독립된 대지를 소유하면서 수평적으로 분화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독일에서는 주거부분과 상업부분이 한 건물 내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수직적으로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수평적 분화의 경우에는 오직 상업건물만이 외부공간의 전면을 형성하고 주거건물은 후면적 성격, 즉 혼재된 반공적, 반사적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수직적 분화의 경우에는 주,상 복합건물로서 외부공간이 전면, 후면의 뚜렷한 대조관계를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배치 역시 주거건물의 가로에 대한 상이한 대면 관계, 즉 전면의 직접적인 대면관계와 가로에서 물러난 대면관계를 설명한다.

#### 4. 주호 내부공간의 차원 - 개방성과 폐쇄성

한국 주거의 내부공간은 각 실간에 상호 강하게 결합된 구성상의 특징을 보인다. 이 때 거실, 또는 마루는 내부공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각 실간의 연계 기능도 함께 갖는다. 복도공간은 거실과 통합적으로 구성된 양상을 보이고, 따라서 내부공간은 개방적 성격을 갖는다.

한편, 전형적인 독일 주거의 내부공간의 특징은 각 실의 독립적 구성과 이를 계획적인 면에서 해결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복도이다. 거주원 공동공간인 거실 및 식사공간도 하나의 개실로 간주되고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하나의 개실로 진입할 때 다른 공간을 통과하게 되는 구성은 통과실(Durchgangszimmer), 또는 먹힌실(gefangenes Zimmer)이라 하여 전형적인 내부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는 매우 꺼리게 된다.<sup>10)</sup> 따라서 통과동선이 어느 실도 방해하지 않도록 따로 마련된 공간이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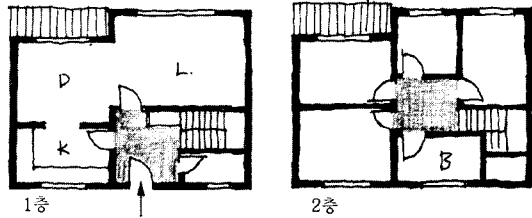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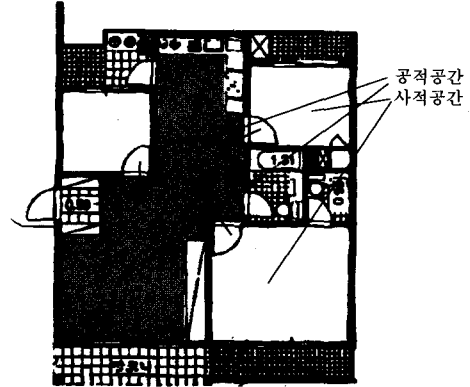
그림 15. 딜레가 있는 전형적 단독주택  
(독일 Aachen Gruenenthalerstr.,  
2002년 2월 필자 스케치)

도이다. 이로써 개인공간은 주호 내부의 공동공간 - 거실, 식사공간과 같은 - 에 노출되지 않고, 내부공간은 매우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이러한 공간은 프라이버시의 조절과 원치 않는 방해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한다(Lawrence, 1999). 현관문으로부터 각 공간에 이르는 동선을 모아주고 분배해 주는 기능은 종종 딜레(Diele)라 불리는 현관공간이 확장된 막힌 공간이 담당한다. 그림 15는 딜레(어두운 부분)가 있는 단독주택의 평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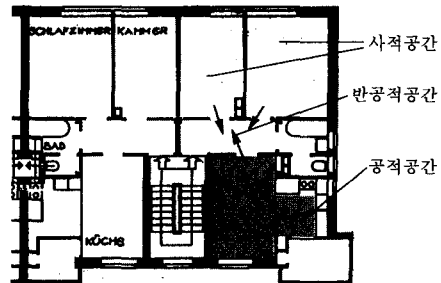
한국 주거의 거실은 거주원들의 모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공간으로의 진출입시 자연스럽게(또는 강제적으로) 다른 거주원들과 마주치게 되는 상호접촉의 장소가 된다. 반면 독일의 주거에서는 각 개인공간으로의 진출입시 공동공간을 통과하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현관에서(또는 현관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거실 등 공동공간으로의 출입이나 거주원들의 모임 및 교류는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독일 주거에서의 복도 및 통로공간은 내부 거주원들의 공, 사 관계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공간, 즉 반공적, 반사적 공간이 되는데, 이는 한국 주거 외부공간에 있어서의 골목의 존재와 역할에 비교된다.

독일 주거의 내부공간에서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통이 복도라는 매개공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 주거의 내부공간에서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대면이 더욱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10)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 개념의 내부공간 구성은 거주자간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거주자 구성원의 규모 및 구조의 변화로 시간적 경과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겪게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민주거의 유형 중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널리 나타나는 전형적인 평면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a) 한국 공동주택의 일반적 평면



(b) Zeilenbauung (연속주택)에서의 일반적 평면유형 (독일, Metzendorf)

그림 16. 공동주택의 전형적 평면유형

#### IV. 거주자의 대 사회적 개념과 주거공간의 영역별 구성

##### 1. 주거공간의 영역별 위계와 사회적 의미

공간의 영역별 위계에 따라 형성되는 공간적 요소와 거주자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범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sup>11)</sup> 한국과 독일의 주거공간에서 공간구성의 위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경험의 경로, 그리고 공간으로 인해 형성되는 대 사회적 관계형성의 범주가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ester *et al.*(1983)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는 서로 다른 공간적 성격의 경계와 배치로 조절된다. 공간적 근접은 사회적 교류를, 공간적 거리감은 그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규정된 공간의 성격은

11) 이 표에서 보여주는 간략한 도식은 주거공간과 그 주변환경의 경우 집합주택을 예로 삼아 작성한 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림 10 참조.

표 2. 한국과 독일의 영역별 공간구성 체계와 대사회적 관계 비교

공간의 영역 공간의 성격	거주지와 거주지 인근환경		주거 내부공간	
	공간구성요소	사회적 관계형성의 범주	공간구성요소	사회적 관계형성의 범주
한국	공적 	가로, 광장 (답장형성) 익명의 대중	반공적 	현관, 거실(마루), 식사공간 가족, 주거공동체 구성원, 거주인, 방문인
반사적		주동 현관, 마당 가까운 이웃 및 친척, 지인	사적 	개인공간 개인
공간 구성의 특징	주거공간과 공적 외부공간 사이의 전이공간은 다중으로 세밀하게 단계를 지닌 구성을 보임, 공공의 영역으로서는 강한 경계의 차단을 형성함		가족, 또는 거주원의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구성, 공동공간과 개인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없음, 공간의 개방적 성격	
독일	공적 	가로, 광장 익명의 대중	반공적 	현관, 거실, 식사공간 가족, 주거공동체 구성원, 거주인, 방문인
반사적		주동 현관, 계단실 이웃, 지인	사적 	현관 전실, 복도, 통로공간 가족, 주거공동체 구성원, 거주인 개인공간에 면한 전실 개인
공간 구성의 특징	주거공간과 공적 외부공간 사이에 완충공간이 없음, 공적 영역으로의 비교적 수월한 접근성 형성		개인적 성향을 지향하는 구성, 명확히 정의된 중간적 성격의 공간형성, 공간의 폐쇄적 성격	

사회적 규범, 행위패턴, 역할을 나타내는데 이는 독일과 한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문화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인간사회의 집단은 “나”라는 개체로부터 출발하여 나를 둘러싼 가족, 친지 이웃 등의 소그룹(게마인샤프트: Gemeinschaft), 소그룹들의 집합체인 사회(게젤샤프트: Gesellschaft)로 확대된다. 확장된 집단일수록 “나”의 존재는 점점 희박해지고 익명성이 점차 짙어지게 된다. 이들 각 집단을 인식하는 정도와 중요도는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거주지와 거주지 인근환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주거공간이 대외적으로 접촉하는 관계는 반공적, 반사적 소그룹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공적 사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갖고 형성된다. 반면 독일의 경우는 공적 사회에의 대응이 매우 적극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공적, 반사적 소그룹에 대한 대응은 없거나

미약하다.

주거 내부공간에서의 공적관계와 사적관계는 한국의 경우 개인공간이 공동공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구성, 독일의 경우는 반대로 개인공간이 공적 영역으로부터 물러난 구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외부공간의 체계와는 상반된 것이다.

2. 거주자의 대사회적 개념에 대한 고찰

이상과 같은 사실은 각 영역단계별 사회집단에 대한 우선 순위 및 집단에의 소속감에 대한 중요도가 각 문화별로 거주자들에게 상이하게 부여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사회적 행위패턴과 가치체계 패턴은 공간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면적 거주지 구성은 가로, 광장의 인식 정도가 미약함을 시사한다. 즉, 직접 대면하는 외부공간

에서 공적사회에는 그 의미가 약하게 부여된다. 공공에 대한 개념은 이웃, 공동체적 관계형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사적 범주와 공적 범주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완충적 성격의 공동체적 범주가 존재한다. 한편 내부공간에서는 사적공간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이로써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나”라는 존재가 가족 공동체적 구성원 사이에서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하여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은 후면에 위치해 있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는 담으로 막혀있지만 주거건물의 전면에 개방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 공간이 이웃간의 담소장소, 잔치, 모임의 장소로도 제공됨으로써 반 공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으로도 공동체적 개념에 대한 공간적 대응을 볼 수 있다.

마당, 담, 골목의 존재는 한국의 주거공간이 내부에서, 그리고 반공적, 반사적 완충공간에는 개방적이며, 공적 외부세계에는 폐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공동체, 이웃과의 인간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강하며 관용적인 반면, 익명의 대중에는 고립적이며 접촉거부적이다.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중과의 관계는 소원하며, 공공보다는 “나”, “우리”의 것이 인식의 우위를 차지하면서 “나”와 “우리”는 거의 동일시된다.

주거공간 내부에서 외부사회와의 관계는 손님 방문 시 주로 형성되는데, 한국의 경우 손님초대 시에도 개방된 거실로 인하여 아동 및 다른 구성원과의 접촉, 또는 방해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는 개방적 내부공간으로 인하여 외부 - 특히 초대받은 공동체적 관계의 범주 - 에 대하여 “나”와 “나의 가족”이 일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생활의 노출에도 어느 정도 관용적이 된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한 가족 내부에서도 부모와 아동의 생활구분은 매우 뚜렷하다. 개인은 주거 공동체, 가족이라는 집합체 속에서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 방문객에 의한 사생활 노출, 손님초대 시 아동 및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공간적 공유는 매우 꺼리게 되어 이는 방해의 개념으로 수용하게 된다. 폐쇄된 거실 및 공동생활공간, 그리고 분리된 통과동선을 수용하는 복도의 존재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원인과 동시에 결과의 공간적 표출이다. 이들에게 “나”

표 3. 주거공간의 영역별 대조적 성격

	단위주거와 주거지 및 그 주변환경과의 연계	단위주거 내부공간간의 연계
한국	반공적/반사적 지향적 - 독립적, 소극적 - 전이공간의 영역별 단계형성 - 공적 공간과의 대면 차단	공사의 통합 - 공, 사의 직접적 전이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상호의존
독일	공적지향 - 공, 사의 직접적 전이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직접적 대응	공사의 분리 - 독립적, 분리적 - 전이공간의 영역별 단계형성

와 “나의 가족”, 또는 주거공동체는 동일한 대상이 아니며, 외부 방문객 역시 사생활에는 접근이 차단된 체제3자로 남게 된다.

독일의 경우 내부공간이 폐쇄적인 반면 외부공간은 공공의 영역에 개방적이다. 정원은 후면에 자리잡은 사적공간으로의 의미가 커 공, 사 영역간의 완충공간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 “나”와 “공공” 사이는 가족, 소집단, 이웃 등에 의한 중간 여과단계 없이 직접적으로 접촉된다. “가족”이라는 사적 집단도 공적인 것에 바로 노출되는 것을 개의치 않으며, 익명의 대중과 광장, 가로와 같은 공적 외부공간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거주지의 선적 구성은 가로 및 광장에 대하여 강한 의미가 부여됨을 시사한다. 이에 따른 공공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직접적 대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영역별 공간 구성을 고찰한 결과 두 상이한 문화권에 있어서의 대사회적 개념의 성격은 다음 표 3과 같이 상호 대조적이다. 한국의 경우는 대사회적 개념이 반공적, 반사적 지향적, 소그룹 지향적, 공과 사의 통합 지향적이라는 것이 공간구성을 통하여 유추된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개인 및 공적지향적임과 동시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상호 분리지향적이라는 것을 공간구성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 V.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주거공간은 인간생활의

가장 가까운 행위의 장으로서 주거지 및 내부공간의 배치와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사회적 행위패턴의 특성을 반영한다. 특히 이것이 상이한 문화권에서 비교 관찰되었을 때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한국과 독일을 예를 들어 고찰한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주거가 지난 수십 년 이래 외형적인 것은 서구의 것을 많은 부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체계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 거주자의 행위패턴과 사회적 관계형성의 특성을 많이 반영해 왔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화, 지역화 시대에 있어서 주요 논점이 되는 지역별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과 차별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인문적인 거주자의 성향과 공간으로 구체화된 물리적 환경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추상적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 및 사회적 인자가 이러한 공간적인 현상에 투영되어 나타날 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응인자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

다. 본 연구는 주거공간에 대한 물리적 관점에서의 비교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시각을 갖고 공간적 특성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주자의 성향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로써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주거와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인 일익을 담당하였는데 그 의의를 둔다.

### 참 고 문 헌

1. 김영석, 도시단독주택지에 있어서 환경과 행동과의 상호침투관계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10호
2. 손세관, 한기정, 유형적 형태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3. 전남일 (1999) 독일 집합주택 계획에서 나타난 건물 형태, 배치, 진출입공간의 형태론과 결정인자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권 10호
3. Bollnow, O. F. (2000) Mensch und Raum, Stuttgart
4. Fehl, G, *et al* (1991) Werksiedlungen im Aachner Revier, RWTH Aachen.
5. Fester, M., Kraft, S. & Metzner, E. (1983) Raum für soziales Leben, Karlsruhe.
6. Law, S. M. & Chambers, E. 편저 (1994) 주거문화 연구회 역, 주거, 문화, 디자인.
7. Lawrence, R. J. (1999) 이연숙 외 7인 역, 주택, 주거, 집
8. Schmidt-Hermsdorf, C. & G. (1984) Stadtlesebuch-Ein historischer Langsschnitt durch die aachnerStadtentwicklung.